

'위드코로나 이후' 영화 관객 급증

1~7일 총 관객 211만명 전주 대비 2배... 첫 주말 이틀 연속 50만 관객 넘기기도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되자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자정을 넘겨 심야 영화 상영이 가능해지고, 극장 내에서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되자 관객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합인 쿠폰 지급과 함께 마블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잇따라 개봉하면서 선택지가 늘어난 것도 관객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

8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화관 총 관객수는 211만695명이었다. 이는 위드 코로나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달 25~31일 총 관객수인 99만3071명보다 112%(111만7624명) 늘어난 수치다.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첫 주말이었던 6일과 7일 총 관객수는 각 59만2334명, 51만5811명이었다. 10일 총 관객수는 519만명이었다. 이를 만에 지난달의 10% 이상을 채운 것이다.

1~10월 중 일일 관객수가 50만명을 넘긴 건 지난 7월 10일과 8월 15일 딱 두 번 뿐이었다. 이를 연속 50만명 이상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위드 코로나와 함께 관객이 급증한 건 각종 긍정적인 요소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정부가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한 직후 CGV·롯데시네마 등 대형 극장 체인은 상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백신 패스'를 열었다. 백신 2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관객만 들어갈 수 있는 상영관으로 이곳에선 팝콘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CGV는 전체 상영관의 약 30%를 백신 패스관으로 운영 중이다. 또 영진위는 주말과 평일 상관 없이 6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 203만장을 뿌리고 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은 이달 한 달 간 4주에 걸쳐 영화 티켓을 구입할 때 선착순으로 합인 쿠폰을 다운

받으면 1인 2장까지 영화 요금에서 각 6000원을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베놈2:렛 데어 비 카니지' '둘' '이터널스' 등 할리우드 대작 영화가 잇따라 개봉해 극장에서 볼 만한 작품이 늘어난 것도 관객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 '매트릭스:리저렉션' '모비우스' '언차티드' 등 대형 작품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로 예상된다.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현재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한국영화 중 흥행에 성공하는 작품이 나와준다면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개봉을 앞둔 한국영화는 장혁 주연의 '강릉', 류승룡이 주인공을 맡은 '장르만 로맨스', 윤계상의 '유체이탈자', 전종서의 손석규가 출연하는 '연애 빠진 로맨스' 등이다.

/뉴시스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면 '라이프 트렌드 2022'

2020~2021년은 모든 트렌드의 주도권을 코로나와 팬데믹이 가져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였다.

팬데믹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2022년은 확실히 다르다. 2022년은 2020~2021년처럼 뉴노멀에 적응하느라 급급한 때가 아닌, 적극적으로 베테 노멀 라이프를 욕망하는 해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뀐 우리의 욕망, 사회, 비즈니스 등을 흡수한 채 더 나은 일상을 찾고자 한다.

'라이프 트렌드'의 10주년 판 '라이프 트렌드 2022'(부기)은 새로운 일상을 넘어 더 나은 일상을 지향하는 사람들, 베테 노멀 시대에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 그들의 숨은 욕망을 포착한다.

이 책은 문화,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 소비에 영향을 미칠 '열두 사람'을 꼽았다.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소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가드닝 트렌드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들,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사람들, 명품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준과 가치를 세우는 사람들, 디지털 휴먼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려는 마케터들, NFT 등 디지털 자산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규칙과 경계를 넘어 스타일을 창조하는 Z세대, 클러터코어를 추구하는 사람들, 보살 소비를 통해 셀프 행복을 구현하는 사람들, 오열 엘리트 이슈를 재해석해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 크래프트 상품을 찾아내는 소비자들과 기획자, ESG 담당자와 경영자가 이에 해당한다.

내년 문화와 일상에서 팬데믹 시대가 초래한 급속도의 뉴 노멀은 팬데믹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빠른 진화를 이어 갈 것이고 결국 적응하는 자, 도태되는 자,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의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또한 능력주의의 폐해이자 한계를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이 보완해야 하는 속제도 주어져 정치와 사회는 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 갈등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고한다.

/뉴시스

문화예술 발전 도모 '정읍 예술제' 성황리 펼쳐져

9개 예술인협회, 시민들과 소통·공감 위해 다양한 공연·전시 등 진행

정읍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축제의인 '제25회 정읍 예술제'가 지난 6일 연지아트홀에서 펼쳐졌다.

정읍시가 후원하고 사)한국예총정읍지회(회장 최창수)가 주관한 정읍 예술제는 9개 예술인협회와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한 예술축제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위축된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전시·공연으로 시민들의 문화 감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객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연 영상을 송출했다.

행사는 국악협회의 무용협회의 '국악제, 무용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영화인협회의 실버영화제 우수작 상영과 아이언맨 등 히어로 코스프레를 통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 음악협회와 연극협회, 연예예술인협회의 다채로운 공연과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등이 펼쳐져 지역민들에게 문화의 풍요로움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일부터 7일까지 연지아트홀 전시실에서 문인협회의 시화전이 열린다.

또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C·르하다리 인근에서 미술협회의 '내 고장 정읍전'과 사진작가협회의 '정읍공원 사진전'도 펼쳐진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자연과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 고장에 예술의 향기가 더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정읍 예술제가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그동안 쌓인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심신의 여유를 회복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정읍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종합예술축제의인 '제25회 정읍 예술제'가 지난 6일 연지아트홀에서 펼쳐졌다. 유진섭 시장이 정읍예술제 영화제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17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개최

순창군이 제17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를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순창국악원에서 개최했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 순창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으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부 장원은 김해경씨, 최우수상은 조공순씨, 우수상은 이우창씨가 차지했다.

시조창은 시조시에 곡을 올려 부르는 노래로써 고려 말 사대부들이 삶의 여유와 여백을 담아 긴 호흡으로 엮어내는 느낌의 미학이라 불리는 독창적이고 예술성이 돋보이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순창은 전국 지회 중 명인, 명창이 가

장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 전국 대회로서의 그 위상이 높다.

이번 대회의 경연종목은 총 6개 부문(평시조, 사설시조, 지름시조, 명인부, 명창부, 대상부)으로 나눠 치러진 가운데 각 부문별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 심사·집계했다.

류재복 대한시조협회 순창지회장은 "전국의 시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동호회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치고 즐기는 모습에 시조인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며 "시조문화의 계승을 위해 시조문화가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명돼 시조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원형 기자

'노벨문학상 후보' 저메이카 킨케이드 '루시' 출간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 저메이카 킨케이드의 대표작 '루시(정소영 옮김)'가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203번으로 출간됐다.

주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색채가 짙은 작품을 써온 킨케이드는 1990년 발표한 '루시'에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의 기억을 불러낸다.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미국에서 홀로 생활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춘 '루시'라는 인물을 빚어내고, 그의 눈에 비친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 보인다.

서인도제도도의 앤티가섬에서 태어나 자란 뒤 열일곱 살에 외국인 입주 보모로 미국 뉴욕에

가 생활한 자전적 경험을 담은 성장소설이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이 작품은 서인도제도 출신 소녀 루시가 영국 지배하에 있는 고향을 떠나 뉴욕으로 추방되는 대도시로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그후 1년간의 삶을 그린다.

빠앗킨 것들과 기계이 상실한 것들의 긴 목록, 그 중심에는 '엄마'가 있다. 루시는 남동생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거창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는 엄마에게 격분한다. 딸을 자신의 반영처럼 키우려는 엄마로부터 떨어져나와 진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 자신의 삶을 재정의하기 위해, 루시는 홀로서기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